〈구역모임 교재 / 2025년 10월 26일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 신앙고백 : 사도신경으로 / 다 같이

* <mark>찬 송</mark>: 자유롭게 / 다 같이

* 합심기도 : 오늘의 구역예배에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시고, 오늘 모인 장소의 가정을

축복해 주소서.

* 대표기도 : 지난 주에 예배드린 가정의 가족 중에서 한 분

* 성경봉독 : 창세기 5장 21~24절(구약 p.7)

▶ A. 구역공과 ◀

1. 지난 한 주간동안 살면서 가장 감사하게 느꼈던 일이나, 주일영광예배 때 나눈 말씀 을 삶 속에 적용하면서 생긴 에피소드가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 2.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옮기기 전에 그는 어떠한 증거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나요? (히브리서 11장 5절)
 - 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② 하나님에게 믿음을 인정받은 자

③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 ④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 3. 다음 보기를 보고 괄호() 안에 알맞은 숫자를 넣으세요. **〈보기〉 969, 7, 300, 65**

- ① 에녹은 아담의 ()대손입니다
- ② 에녹이 므두셀라를 낳은 때의 나이는 ()세 입니다.
- ③ 므두셀라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 가장 오래 산 인물로 ()세를 살았습니다.
- ④ 에녹은 므두셀라를 낳은 후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 4. 이번 주 동안 매일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느낄 수 있는 실천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구역식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실천해보세요.

〈예시〉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참여, 매일 10분 성경읽기, 가족이나 이웃에게 하나님과의 동행 이 느껴지도록 말하거나 친절을 베풀기,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식 하며 말하고 행동하기 등

▶ B. 공동체 성경읽기 ◀

월요일(골 1~2장) 당시 골로새에는 영지주의라는 철학을 비롯하여 공리주의, 신비주 의, 금욕주의 등 온갖 철학과 이단들이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편지 자체가 갖는 따뜻함과 더불어, 독특하고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 하는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가운데 한평생을 보낸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설명합니다. 바울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뛰어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완전성과 충만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부족 함이 없으므로 다른 헛된 규례나 철학들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 켜 "비밀"이라고 말하며,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말합니다.

화요일(골 3~4장) 사람의 생각은 제한되어 있고 지극히 작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크고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발견했습니다. 그 리고 바울은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에서 주변 사람들의 문안을 골로새 교회에 전해 주 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서신을 통해 골로새 교회에 안부를 물을 수 있을 만큼 바 울과 가까이 있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수요일(온 1장)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제자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만난 사람 중 오네시모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오네시모가 바울을 찾아와 자신이 바울의 제자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나온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고민하다가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 모



로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법률에 따르면, 도망간 종이 다시 잡히면 주인이 종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네시모는 바울의 설득을 듣고 주인에게 돌아가기로 합니다.

목요일(발 1~2장) 빌립보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도중 아시아를 넘어 도착한 유럽의 첫 관문이었



습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루디아와 점치는 여종, 간수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모여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의 경제적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때 빌립보 교인들이 정성을 다해 헌금을 모았습니다. 모은 연보를 가지고 로마에 온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더

불어 교회의 일을 이야기하던 중에 교회 안에서 유오디아파와 순두게파가 대립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털어놓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만 그곳에서 병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그로 인해 많은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을 회복하여 빌립보로 돌아가게 되자, 바울은 기쁨으로 이 빌립보서를 써서 그의 편에 보냅니다.

금요일(발 3~4장) 바울은 발립보 성도들에게 감옥에 갇힌 자신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부탁합니다. 또한 바울은 교회 안에서 다투고 있는 여인들에게 서로 화목할 것을 권하고, 주님 안에서 일하는 동역자들끼리 하나가 될 것을 부탁했습니다.



<mark>토요일(딤전 1~2장)</mark> 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바울은 자신의 뒤를 이어 앞으로 교



회를 이끌어갈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정성 어린 조언을 남깁니다.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사역을 물려주고, 그의 목회를 돕기 위해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본래디모데 개인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게 하며, 목회 사역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조언들로 이루어져 있어 '목회서신'이라 불립니다. 디모데전서 안에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서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스도인의 몸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 일(日전 3~4장) 다른 한 가지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장로나 집사를 세우는 일 등은 바로 이 디모데전서에서 다루고 있는 특별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외에도 바울은 사역자의 자세와 관련하여 거짓 교훈을 경계하고, 복음과 교회의 일 꾼으로서 선한 교훈으로 양육 받으며, 경건을 연습하라고 충고합니다.



* 합심기도:

- 1.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 체험이 되게 하소서
- 2. 우리 마음에 있는 불신앙, 타락된 습관, 경건하지 못함을 회개하게 하소서
- 3. 믿음의 세대가 연결되게 하시고, 나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하소서
- * 찬송 및 헌금 : 찬송가 331장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구역헌금을 드리겠습니다.
- * <mark>봉헌기도 및 주기도문 :</mark> 드린 예물을 위해 구역장님이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역헌금은 해외선교를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군산삼학교회 교역자실(책임출제자: 박광서 부목사)